

내 용 증 명 (민원사항)

대지주소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124-6번지

수신자 : 경남군청 도시계획과

발신자 : 위 대지의 옆집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124-12) 건물주

발신일자: 2021년 09월 07일

상기 대지의 신축공사중 본인의 집에 피해가 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9월 10일까지 본인의 메일로 조치계획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 : 백 성 현 (HP: 010-9349-3839)

E-MAIL : oomo11@naver.com

1. 대지내의 성토구간



위의 사진으로도 확인가능한 높이가 당초 허가사항에는 높이 500 mm 로 허가를 받고

(본인의 아버님이 군청에서 확인 (2021년 9월 3일)) 현재 1150mm로 확인됨

건물주에게 성토구간을 낮추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며 당초 허가높이를 준수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높이를 조정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땅이 임야에 인접하여 절토를 하고 석축을 쌓는것을 본인은 상관없지만 이로 인하여 본인의 입구를 기괴한 석축으로 막아 버리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군청에서는 허가부분과 상이하니 이를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상이하게 진행된 상황을 알고 이를 은폐 또는 묵인 한다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니 유념하시어 행정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2.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처리.



현장주변의 가시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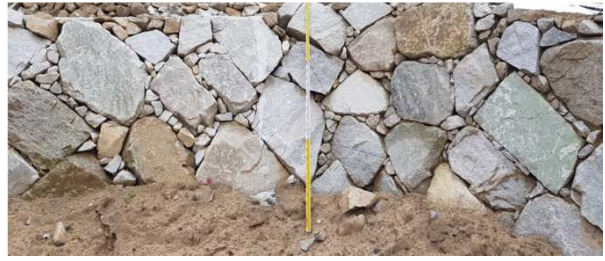
건설현장의 주변에 공사시작전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심지어 본인의 땅에 장비가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비가 오면 본인의 집 입구가 질퍽질퍽하여 통행이 힘들.

조속히 방음벽을 설치하여 본인의 땅에 침범하지 말고 본인의 집으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 바람.

3. 야산 절토후 배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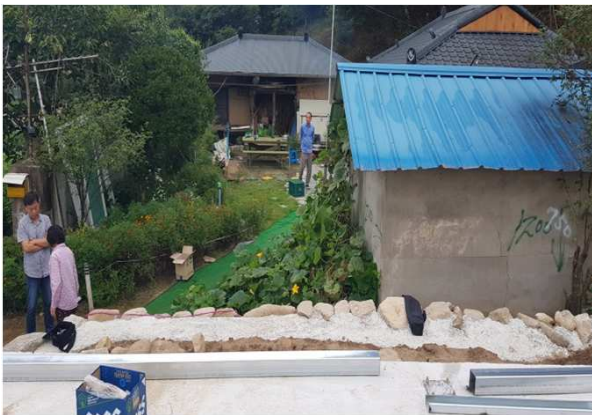




야산을 절토하여 석축을 쌓은부분이 3,000mm ~ 1,500mm 입니다.

그 기울기를 확인하면 야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빠른속도로 본인의 집으로 쏟아질 우려가 있고 약한비에도 본인의 대지로 우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대지 안에서 우수처리하는것은 기본이니 석축쪽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본인의 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준공시 꼭 확인하시어 본인(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무단으로 준공처리시 이후 발생하는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본인의 대지쪽 담장쌓기.



대지의 배면, 좌측면은 본인의 대지와 접하는 부분입니다. 담장을 설치하여 본인의 대지로 통행을 차단할 담장 및 헨스를 시공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면을 시선을 차단할수 있는 높이로 하시고 좌측면은 통행을 할수 없도록 난간대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옆집(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조치이며 군청에서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 중도적인 입장에서 행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5. 대지의 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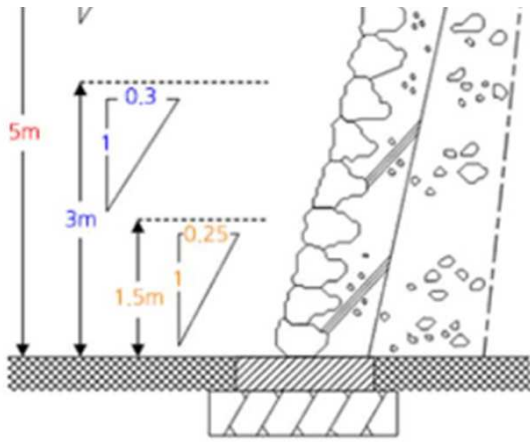




공사현장의 대지경계선에 쌓아놓은 석축이 본인의 대지로 침범함.
 지적측량이후 본인이 확인한 지적점으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대지로 침범하였습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계침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지적점이 없어져서
 지금은 확인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공시 현황측량할때 본인도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오니 준공검사시 확인바라며 무단으로 준공처리가 된다면 본인이 입증
 하여 경계침범이 확인될시 군청 및 건축사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6. 현장의 위험성





공사현장의 야산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40도 이상이거로 보이는데 석축의 높이가 3M 입니다. 그러면 규정상 정해진 기울기를 유지하고 뒷채움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야산의 절토로 인하여 지반붕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한 기울기가 유지되지 않아 위험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군청에서 확인하시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축 3M 바로 옆 사과밭에서 한창 수확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다리에서 잘못 하여 낙상하게 된다면 3M 아래로 추락할 여지가 있으니 안전부분도 확인하시어 안전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신축 건물주와는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본인의 대지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는데 본인의 집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도록 군청에서는 허가사항 및 안전사항, 민원사항을 확인하시어 편협하지 않은 조치를 바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